

Joseph H. Fichter와 Gerhard Lenski 비교연구의 관점에서 본 한국 가톨릭교회의 선교

송 차 선*

目 次

- I. 서론
- II. 종교사회학에서 두 학자의 학문적 배경
- III. Joseph H. Fichter
- IV. Gerhard Lenski
- V. 결론

I. 서론

2006년에 새로운 추기경을 탄생시킨 한국 가톨릭은 자체적인 평가와 별도로 우리나라의 정치 및 사회적 측면에서 국력의 신장과 연관하여 평가되기도 했다. 그러나 가톨릭교회의 구성원들은 한국 가톨릭이 두 명의 추기경을 갖게 된 것을 국력의 신장 때문이라기보다는 한국사회에서의 선교(宣敎)¹⁾와 연관하여 가톨릭교회의 성장의 결과로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박사 수료.

1) 선교(宣敎)라는 용어를 논자는 'Evangelization'의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가톨릭에서는 이 용어를 '복음화'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비 가톨릭계의 독자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으므로, 이하 모든 '선교'라는 표현은 Evangelization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선교의 정도는 교회의 성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한국의 인구대비에서 몇 퍼센트가 가톨릭 신자인가 하는 것은 가톨릭교회 성장의 중요한 척도 중 하나일 것이다.

지난 2006년 5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 총 조사 전수집계 결과」²⁾에 따르면 2005년 11월 1일 현재 우리나라의 천주교 인구는 514만 6천 명으로 10년 전인 지난 1995년의 295만 1천 명보다 7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국내 천주교 신자만 219만 5천 명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에 전체 종교 인구가 237만 3천 명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국내 전체 인구 중 종교를 갖고 있는 비중은 53.1%이며 그중 천주교 신자 비율은 10.9%로 조사됐다. 서울인구 989만 5천 명 중 천주교 신자는 14.2%인 140만 5천 명이다. 개신교가 10년 전의 19.7%에 비해 18.3%로 1.4% 감소하고 불교는 23.2%에서 22.8%로 0.4% 낮아진데 반해 천주교는 10.9%로 10년 전의 6.6%에 비해 4.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불교는 0.3%, 유교는 0.2%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3대 종교 중에서 유독 가톨릭만 증가추세를 보였다는 점은 종교학계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논자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한국 가톨릭 사제들과 교회지도자들은 그 외적 성장이 반듯이 선교의 정도와 일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듯하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논자는 Joseph H. Fichter와 Gerhard Lenski의 이론적 근거에서 선교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읽었다. 이 두 학자는 비교적 최근의 미국의 종교사회학계에서 괄목할 업적을 남겼다. 혹자는 Fichter를 미국종교사회학의 개척자, 혹은 개척자라고까지 칭송하기도 한다. 비록 Fichter를 중심으로 학파가 구성된 것 같지는 않으나 그의 측정론과 유형학은 Lenski가 계승하고 Glock은 이를 더욱 발전시켰다. 하지만 이들의 모든 종교사회학적 이론을 비교할 수는 없겠기에 Fichter와 Lenski의 이론만을 비교하여 한국 가톨릭의 선교의 정도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고의 목적이다.

Fichter는 뛰어난 필력으로 많은 저술을 남긴 반면에 우리에게 알

2) 「인구주택 총 조사 전수집계 결과」는 모든 일간지에 보도가 되었지만 이하 모든 수치는 《평화신문》(2006. 6. 4.)을 인용하였다.

려지고 전해지는 Lenski의 저술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하지만 Lenski의 대표작인 *The Religious Factor*가 지니는 내용의 충만함으로 Lenski의 사상이나 이론을 Fichter와 비교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작업은 아니다. 따라서 우선 풍부한 저술을 남긴 Ficher를 중심으로 그의 이론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Lenski의 대표저술을 검토하여 Ficher의 이론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이 두 종교사회학자들의 비교가 어떻게 한국가톨릭교회의 선교의 측정에 적용할 것인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II. 종교사회학에서 두 학자의 학문적 배경

Fichter(?~1994)와 Lenski(1924~)는 미국에서 종교사회학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유럽대륙의 종교사회학적 방법론 및 학문적 태도와 비교하면 각각 독특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두 학문적 분위기에 대한 차이점을 여기서 굳이 모두 논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선 미국의 종교사회학의 학문적 태도만을 고려해보면, 크게 세 범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첫째 Parsons를 중심으로 한 기능주의, 둘째 Peter Berger를 중심으로 한 형이상학적이며 현상학적 이론의 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사회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측정론이라는 학문적 태도로 구분할 수 있다. Fichter와 Lenski는 이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되는 측정론적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겠다.

두 학자들이 종교사회학을 전개하기 위한 학문적 방법론은 형이상학적 이론보다는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것이었다. 먼저 연구의 대상을 설정하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측정 자료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표본 조사(survey)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사해낸 요소나 자료들을 분석하여 찾아낸 결과들로 이론을 구축하는 이들의 학문적 방법은 유럽 전통의 학문적 방법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유럽 전통에서 종교사회학 연구의 초석은 뒤르켐과 베버가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들은 오늘날까지도 종교사회학의 연구 범주에서 절대 배제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을 미쳐 왔으며, 그 영향은 미국에도 예외 없이 작용해 왔다. 하지만 미국의 학문적 토양의 기준에서 볼 때에 뒤

르캥과 베버의 연구가 모두 현장작업(Field work)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취약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다. 베버는 대표저술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정신』에서 미국의 개신교를 언급하지만 베버는 미국을 몇 달 잠시 다녀온 것이 전부이다. 뿐만 아니라 뒤르캥도 오스트레일리아를 한 번도 다녀오지 않았으며 다만 선교사나 여행자들이 남긴 자료만을 가지고 연구하여 『종교생활의 기본적 형태』라는 저서를 남겼을 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종교사회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뒤르캥과 베버마저도 미국의 학문적 풍토 속에서는 문제집이라고 지적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유럽 전통의 학문은 Malinowski 이전만 해도 실증적 자료를 가지고 이론 전개를 것은 아니었으며, 문헌만 가지고도 학문적 이론전개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학풍과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Fichter와 Lenski가 유럽학문의 전통적 방식을 모두 배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들의 측정론이 유럽의 종교사회학의 전통과 상관관계가 없는 독자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우선 Fichter만 해도 1940년대에 하버드에서 대학원 과정에서 파슨스 등과 같은 기능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³⁾ 그런데 파슨스는 독일에 유학하면서 종교사회학의 유럽 이론들을 미국에 도입한 인물로서 유럽 전통의 뒤르캥과 베버로부터 구조기능주의의 영향을 받아 미국 사회학의 이론적 한계를 극복하려 하였다는 점은 종교사회학 분야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지만 Fichter는 뒤르캥과 베버로부터 이어지는 파슨스의 학풍을 계승하면서도 기능주의를 그의 주된 작업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다.⁴⁾

한편 Lenski 역시 기능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유럽학문의 전통적 방법론을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았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The Religious factor*의 서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학문적 배경과 이론의 기초는 뒤르캥과 베버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Lenski는 뒤르캥의 대표저서인 *Th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와 베버의 대

3) James Davidson, "Review Symposium: The Sociology of Religion of J.H. Fichter,"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Vol. 14, No. 2, 1975, p. 174.

4) *Ibid.*, p. 177.

표저서인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을 재해석하면서, 비록 뒤르켐과 베버가 많은 사회학적 이론뿐 아니라 많은 논란과 토론거리들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조직적이고 경험적 연구를 도출해 내지 못했던 한계를 아래와 같이 지적하였다.

더욱이 (그들이 해왔던) 대부분의 작업들은, 모든 수반되는 방법론의 어려움과 함께, 역사적 성격의 문제를 조사(investigatio)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 거기에는 현대의 거대도시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고, 베버와 뒤르켐의 이론에 의해 거론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주된 연구가 빠져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종교적 제도의 영향이 종교 밖(secular)의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반세기 전보다 훨씬 더 모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 성격을 갖는 경험적이고 실증적 연구는 Lenski에게는 시대적 요청인 셈이다. 그는 현대의 거대한 도시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종교의 대(對) 사회적 기능은 실용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연구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따라서 그는 유럽의 종교사회학적 전통을 따르면서도 연구는 survey라는 독특한 미국적 방법론을 형성하였다. 그러한 측면에서 Fichter와 Lenski는 종교학의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같은 노선을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두 학자의 학문적 배경에서 출발하여 그들이 쌓은 학문적 업적들을 비교해볼 것이다.

5) Gerhard Lenski, *The Religious Factor: A Sociological Study of Religion's Impact on Politics, Economics, and Family Life*, New York: Doubleday, 1963, p. 6. 더 자세한 것은 Ernst Troeltsch의 *The Social Teachings of the Christian Churches*를 참고하면 된다.

III. Joseph H. Fichter

1. 학문적 업적 및 공헌

가톨릭의 예수회 사제였던 Fichter는 25권의 책과 백 편이 넘는 논설들을 발표했다. 이러한 왕성한 작업들은 우리가 종교를 이해하고, 특히 미국 가톨릭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글들을 통해서 그가 소속한 가톨릭교회에 대한 애정과 염려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동시에 가톨릭교회에 커다란 도전을 던지기도 하였다. 그의 방대한 저술을 모두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우선 그의 대표적인 저술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아도 그의 학문적 업적과 공헌이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Fichter의 유명한 작품 중에서 하나라고 할 수 있는 *Southern Parish*에서는 1950년대 당시 미국의 상황과, 사회 및 종교적 배경에서, 도발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톨릭 본당(parish)⁶⁾ 신자들이 실제 행동과 규범적으로 기대하는 가톨릭교회 사이의 간격을 시험하였다.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고 주일미사에 참례하고 하는 신앙인들의 실제 행위들이 교회가 기대하는 종교성이나 교회의 규범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에 의문을 던지고 이를 탐색한다. 그래서 신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신앙행위들의 측정기준들을 가지고 가톨릭 신자들의 종교성의 척도를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조사가 연구가 당시의 가톨릭교회에 대하여 도발적이었던 까닭은 교회가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에 자체에 대한 의심스런 시각도 있었기 때문일 것이

6) Parish라는 용어는 가톨릭 조직에서 한 사제가 담당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를 말하며 한국 가톨릭에서는 이를 '본당'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가톨릭은 속주주의 원칙에 따라 본당을 분할하며, 본당의 집합체가 '교구'가 되고, 교구의 단위가 모이면 '관구'가 된다. 이들은 모두 '지역교회'라고 부르며, 지역교회는 모두 로마 교황청 소속으로 되어있어서, 지역교회 책임자인 주교(혹은 교구장)는 교황청에 의해 임명(nominatio)된다. 미국에서는 본당 안에서 학교를 두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를 Parochial School이라 한다.

다. 하지만 사회학적 측정(survey)방법의 객관적 성과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회학적 방법론을 등한시하거나 백안시했던 배타적 태도도 한 이유였는지 모른다. *Southern Parish*에서 보여주는 그의 도발적 연구는 시작에 불과하다. 제도교회의 권위는 그의 연구에 의해 얻어진 결과들로써 철저히도 전받는 듯했다. 예를 들면 *America's Forgotten Priest*에서 Fichter는 교구 사제(diocesan priest)⁷⁾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교회의 구조에 대해 교구 사제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를 여실히 보여주기도 하였다.

*America's Forgotten Priest*의 부제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What they are saying)”에서 알 수 있듯이 사제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그것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결과들을 찾아내어 가톨릭교회에 큰 도전을 제시하였다. 특히 가톨릭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하여 교회의 커다란 역사적 획을 긋게 되었으며 교회 구성원들에게 큰 충격이 되기도 하였다. 그 충격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적지 않은 사제들이 사제직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가톨릭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스스로를 정화하여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계기가 된 것 또한 사실이다.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은 많은 교부들의 신학적 결정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톨릭 교리의 핵심적 내용을 거의 모두 담고 있는 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의회문헌에서 무시된 의견이 있다는 사실을 Fichter는 날카롭게 지적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위 성직자(신부)들에 대한 문제이다⁸⁾. 따라

7) 가톨릭의 사제는 교구사제와 수도회사제로 구분하기도 한다. 수도회사제는 다시 congregatio와 societas로 구분되는데 예수회 사제는 societas에 속한다. Fichter는 예수회사제로 교구사제가 아니고 societas사제이다.

8) Joseph H. Fichter, *America's Forgotten Priests: what they are saying*,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68, p. 15. “Nor only were there lower-echelon diocesan clergy ignored by Vatican II. The main reason for focusing our study on them is that there are the men in the Church who are seldom consulted even about matters that concern themselves.” Fichter가 지적한 것 같이 바티칸 2차공의회 문헌에서는 사목자와 주교들의 역할과 소명이 강조되었지만 신부들에 대한 의견은 생략되었다. 따라서 하위성직자이며 사제인 신부들의 경체성은 오늘날에도 논란의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

서 *America's Forgotten Priest*에서 제기된 핵심적인 물음은 무엇이 교구 사제들을 힘들게 하는가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연구의 대상은,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방법 안에서, 조직의 하부구조에 속한 이들의 역할과 지위를 조사하는 것이다. Fichter는 사제들의 대표들을 표본(sampling)으로 하여 답을 찾기 위한 많은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8가지로 제기한다.⁹⁾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그 이후에 가톨릭의 개별 지역교회(교구)에도 상당한 영향¹⁰⁾을 미치게 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사제평생교육, 사제독신, 주교와의 관계등과 같은 일부의 문제들은 아직도 논의가 계속되는 계기를 Fichter가 마련한 셈이다. 측정방식을 통해 도출된 결과의 해석과 함의는 교회가 급변하는 세상 안에서 교회의 이상적인 역할에 좀 더 가까워지도록 변화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사회변화의 급속함과 보편성은 2차 바티칸 공의회 교부들에 의해 주목되었고, 사회과학에 의해 강조되었으며, 이 조사연구(survey)에 응답한 많은 사제들에 의해서도 역시 인지되었다. 사회의 변화가 우리의 기술 산업사회에 있어서 영속하는 현상이라는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간혹 놓치고 지나가기도 한다. 인간이 조직한 교회는 이러한 현상 안에서 파악된다. 그리고 '항상 새로워지는 교회(Ecclesia semper reformanda)'라는 의미는 갱신의 과정이 새롭게 지속되며 그것은 결코 완전히 그리고 마침내 성취되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¹¹⁾

그동안 타 종교에 대하여, 그리고 신학을 제외한 사회학과 같은 실

9) *Ibid.*, p. 17. 질문들은 8가지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 교회가 현대사회의 여건에 적응(adapting)할 것인지, 2) 교구사제와 교회장상들 사이의 통교(communiation), 3) 실천에 있어서 사제 직무에 요구되는 신학교 양성과 연관성, 4) 사제 평생교육, 5) 사제들의 사목 여건(working condition), 6) 사제독신과 결혼문제, 7) 사제들이 만나게 되는 중요한 사회적, 도덕적 문제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

10) 예를 들면 사제평생교육의 문제는 교황청에서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한국 가톨릭교회는 교황청의 지침에 따라 1990년대 초 사제평생교육원을 설립하여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1) *Ibid.*, p. 201.

용학문에 배타적이었던 가톨릭교회에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반영하여 사회적 변화에 개방하도록 촉구한 것은 당시 가톨릭교회에 커다란 도전이자 개혁자로서의 면모를 보인다. *America's Forgotten Priest*는 가톨릭교회로 하여금 사회학적 관심을 열어놓기에 충분한 저술이다. 가톨릭교회에 많은 사회학적 성찰을 제공했던 Fichter의 학문적 태도는 그의 저서 곳곳에서 나타난다.

Fichter의 사회학 교재였던 *Sociology*¹²⁾는 근본적으로 사회학의 개념을 명료화하기 위한 연습이었으며 미국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사회학적 개념을 이용한 것이었다고 Davidson은 평가한다.¹³⁾ 그리고 1950년대 후반에 노틀담 대학교에서 사회학 및 신학의 교수들과 토론하고 대학원생들에 의해 제출되었던 연구문헌들을 토대로 한 *Religion as an Occupation* 역시 사회학적 이론을 기초로 하였다.¹⁴⁾ 이 책에서 연구대상은 성직지망 신학생들, 사제들, 수녀들, 수사들로 폭넓게 다뤄지고 있지만 주제의 핵심은 가톨릭교회의 소명에 대한 사회학적 해석이다. 서론(introduction)에서는 전문직과 직업에 관한 사회학은 당시 상당히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계열을 따라 발전되어 왔다 설명하고 있다. 뒤르켐과 그의 학문적 계승자들이 늘 관심을 집중해왔던 노동의 분화(division of labor)는 현대사회의 독특한 현상을 이룬다. 이러한 특성을 지니는 산업화사회를 이해할 필요성은 오늘날 사회과학자들을 고무하였고, 그들은 다양한 분야의 직종들(careers)의 핵심적인 특징들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직원을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하며 역할수행을 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연구를 보통 포함하기 마련이다. 그러한 사회학적 탐구의 관점에서 볼 때 가톨릭교회에서 말하는 성소(聖召)¹⁵⁾도 마찬가지로 전문화된 경력(career)의

12) Joseph H. Fichter, *Sociolog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이 책은 Fichter가 사회과학 개론을 10년 가르쳤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다.

13) James Davidson, *op. cit.*, p. 175.

14) Joseph H. Fichter, *Religion as an Occupation: A Study in the Sociology of Profession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61, p. xi. 이하의 글은 introduction을 요약한 것이다.

15) Vocation을 성소로 번역하였다. Fichter는 성소를 교회직무(ecclesiastical occupation)에 제한하였다.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톨릭교회 안에서는 사제, 수도자의 성소에 대해서 풍부한 많은 글들이 있고, 신학자들과 교회법학자들은 성소자(聖召者)들, 즉 수도자 성직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분석하여왔다. 신학교와 수도원은 가톨릭교회 안에서 성소자들이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널리 알리는 성소문학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묘사하는 많은 전기와 자서전들을 고려할 때 사회과학자가 더 이상 보탬 지식이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사회과학자들이 참가하는 것은 다른 수준의 지식이다. 교회에 봉사하는 성소자들은 직무를 받은(occupied) 사람들이며 전문가들이라는 점에서 직업과 전문가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가 논의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은 그들이 살고 있고 활동하는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양식에 필적한다. 그래서 그들이 봉사하고 있는 사회로부터 문화적으로 소원해지면 그들의 소명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래서 자신을 서로에게, 평신도들에게, 교회 밖의 사람에게 연결시키고 행동하는 방법은 분명하게 과학적 연구와 분석에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⁶⁾ 그래서 Fichter는 가톨릭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소(vacation)도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되면서 동시에 사회과학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서 성소라는 용어가 한국 가톨릭의 상황에서 사용될 때 미국의 vocation의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광의로는 결혼과 연관된 일반성소와 사제 및 수도성소와 연관하여 특수성소를 구분하고 있으며, 협의로 사용할 때에는 특수성소를 말한다. 하지만 Fichter가 vocation을 말할 때에는 가톨릭교회 안의 전적인 봉사자(full-time servants)를 말한다.¹⁷⁾ 교회의 사업과 일반사회의 비즈니스 사업

16) Joseph H. Fichter, *Religion as an Occupation*, *op. cit.*, p. xiv.

17) *Ibid.*, p. xv. 성소(vocation)이라고 할 때 미국에서는 당시에 수녀, 수사, 수도자 지망생, 신학생, 사제들뿐만 아니라 결혼한 사람에게도 두루 사용된다는 점에서 한국과 같다. 그러나 누군가 종교적 소명(religious vocation) 또는 부르심(calling)이라고 말할 때, 교구신학생들이나 사제를 포함하지 않으며 장상들의 직무인 종교적 기능을 말한다. 가톨릭교회 안의 전적인 봉사자를 고려할 때 교회의 성소(church vocation) 또는 교회의 직무(ecclesiastical vocation)를 말하는 것이 분명

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일반사회로부터 배울 것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교회 안에서 신학자들이 만나게 되는 저항은 신학적 지식에 과학적 잣대를 제시할 때 생기며, 이는 사회학자가 종교의 사회학적 조직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제시할 때 나타나는 저항과 같이 병행하며 증폭된다.¹⁸⁾ 따라서 성소에 관한 문제도 과학적 잣대를 들이대면 저항이 생길 수 있지만 반대로 과학적 방법이 성소의 고유한 영역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Priest and People*에서 그러한 사실이 입증된다.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의 사회학적 연구방법은 조사한 사실들을 유형화할 뿐만 아니라 그 사실들의 본질을 가늠하게 한다. *Priest and People*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미국사회에서 사제들의 위상은 사제들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평신도들이 생각하는 것이 훨씬 높았다.¹⁹⁾ 가톨릭평신도는 자신들의 본당 사제에 만족하며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의하면 본당사제의 공적인 이미지는 다만 기능적인 역할로 심각하게 왜곡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본당사제는 평신도 그룹의 의장을 맡거나, 금전적인 문제를 염려하거나, 본당설립 초등학교의 교육문제에 관심을 갖거나 하는 등의 조직화된 기업의 관리자 정도로 평신도들은 보려는 경향이 있다. 사제들은 자신을 상담자나 고해성사와 같은 성무(聖務)를 집행하는 영적 아버지의 역할로서의 자아개념을 더 선호하지만, 기능적이며 조

하다고 말한다. 그가 성소를 가지고 있다(have a vocation)고 할 때 같은 책 p. 3에서 분명히 밝힌다. 그것은 광의의 성소가 아니라 가톨릭 안에서 봉사의 일을 수행하는 종교적인 남녀들과 사제(the priests and religious, men and women, who perform the works of service in the Catholic Church)들에 한정하여 논하고 있다.

18) *Ibid.*, p. xvi.

19) Joseph H. Fichter, *Priest and People*, New York: Sheed and Ward, 1965, p. 198. 이 책은 총 11장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각 장은 요약으로 마무리되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였을 뿐 어떠한 이론적 결과를 도출하거나 문제의 해답을 주지는 않는 방식으로 마무리한다. 다만 독자들이 하여금 요약한 내용을 통하여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직적인 본당사제의 위상은 사목자와 신자들 사이를 전문가와 고객 관계로 왜곡되어있음을 지적한다.²⁰⁾ 물론 이 책에서 실시한 조사와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사제나 평신도들의 정체성이나 역할에 대한 어떠한 답을 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책을 읽는 이들에게 무엇이 사제이며 사제는 어떠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갖게 한다. 따라서 사회학적 탐구를 통하여 현상에 나타난 사실들 안에서 본질을 찾게 되는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제 Fichter가 사회학을 통하여 종교를 연구한 공헌이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가장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할 시기만 해도 “미국 가톨릭은 사실상 사회학적 연구에서 손을 대지 않은 영역이었다.”²¹⁾ Davidson은 Fichter가 연구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던 1940년대만 하더라도 사회학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일반적인 태도는 오만함과 무지함이 뒤섞여 있었던 시기였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서서 가톨릭 지도자들은 사회학의 본질에 관하여 좀 더 잘 알게 되었고, 사회학자들이 무언가를 제공해 준다는 생각을 좀 더 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Fichter는 팔목 할만한 신뢰로 가톨릭교회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가 개인적으로 가톨릭 안에서 사회학적 탐구를 촉진하고 설명하려는 노력은 종교사회학자이 종교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측정(survey)하려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하는데도 기여하였다고 Davidson은 주장한다. 가톨릭교의(Dogma)와 교회 규범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자각, 그리고 변화의 첨단에 위치한 그의 경향은 제도교회를 존중하면서도 감수성을 겸비한 사회학자들이 종교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종사자들이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였다고 한다. 사회학에 대한 증폭된 이해와 확신은 1950년대 이후로 가톨릭대학의 캠퍼스 안에서 사회학과와 성장을 도모하였다. 종교사회학을 연구하거나 가르치기를 원하는 대학원생과 평신도 학부생들을 위해 프로그램이 마련되었고, 오늘날 이러한 많은 학생들은 교회 정책과 실

20) *Ibid.*, pp. 199-200.

21) Joseph H. Fichter, *One-Man Research: Reminiscences of a Catholic Sociologist*, New York: Wiley Interscience, 1973, p. 31.

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학적 전문성을 전해주고 있다. 신부와 수녀들도 교회의 구조와 지역 본당의 수준에서 접하게 될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러한 사회학 과목들에 매료되었다. 그래서 Davidson은 이러한 현상이 교회의 미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다.²²⁾

결론적으로 말하면 Fichter는 자신이 소속된 가톨릭교회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과 종교적 확신이 이론적 지식과 과학적 훈련으로 잘 결합되어 종교사회학 발전에 공헌하였다. 그는 종교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사회과학적 적용과 전개가 종교를 폄훼하거나, 종교에 대하여 반감을 조장하거나, 혹은 종교 자체에 유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반면에 종교가 미래사회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자신을 객관화하고, 현대사회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실현하도록 도전을 주었다. 그는 많은 사회학적 연구의 자료들을 교회에 제공하였다. 따라서 교회의 사람들은 그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일상에서 어떻게 사회학적 상상력을 활용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Fichter의 가장 큰 역할이며 공헌이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닐 것이다.

2. 이론

초기작인 *Southern Parish*(1951), *Parochial School*(1958), *America's Forgotten Priests*(1968)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론이랄 것이 거의 없지만 후기에 와서도 중요한 이론들이 거의 세워지지 않았다.²³⁾ Fichter가 이론을 강조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경험적, 실증적 경향 때문이었을 것이다. 비록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학적 이론을 전개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의 작품에서는 이론적 연속성과 사회학적 개념의 능숙함이 잘 드러난다. 구체적인 사회학적 개념을 창출하거나 활용하는 그의 탁월한 능력은 여러 작품들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중에서 특히 가톨릭의 본당신자들의 유형론(Typology)은 Fichter의 가장 잘 알려진 개념화된 이론인데 이는 정확한

22) James Davidson, *op. cit.*, p. 182.

23) *Ibid.*, p. 173.

경험적 자료 없이 *Southern Parish*에서 처음 나타난다. 하지만 이어지는 *Social Relations in the Urban Parish*에서 유형론은 이론적 연속성 안에서 더욱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회학적 개념의 능숙함이 뚜렷한 본당신자들의 유형론은 종교사회학에서 전례가 없었던 이론적 성과였다.

유형론의 이론적 성과 중에 중요한 것은 종교를 측정(measurement)하는 기존의 방식이 명목적(nominal) 척도였다면, Fichter에 의해 서열(ordinal)의 척도로 시각을 전환시켰다는 점이다. 즉 명목적도는 말 그대로 종교를 교파로 단순 구분하는 것이어서 자신이 가톨릭인지, 개신교인지, 불교인지 하는 소속을 기준으로 해서 종교성을 명목상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서열척도는 같은 종교 안에서도 여러 차원으로 종교성이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Fichter는 *Social Relations in the Urban Parish*에서 도시의 백인 가톨릭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a) 핵심(nuclear)신자, 가장 활동적이며 가장 독실한 신앙인; (b) 형식적(modal)신자, 보통 정도의 실천을 하고 있으며 가톨릭 평신도로 식별하는 미사에 참석하는 수준의 사람들, (c) 주변적(marginal)신자, 종교제도 안에서 기대되는 형식에 겨우, 마음대로 최소한을 따르는 사람들, (d) 쉬고 있는(dormant)신자, 가톨릭정신의 실천을 포기한 사람들, 그러나 다른 종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²⁴⁾ 그의 유형론의 이론은 종교성의 다차원을 말하고 있지만 모범이 되는 신자, 즉 종교성의 모델을 단독변수로 상징하므로 해서 모순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종교 안에서도 종교성의 여러 차원을 학술적으로 처음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성과를 얻었다.

그 밖에 Max Weber의 카리스마 개념과 사회구조의 연관성에 관한 이론의 연장선을 *The Catholic Cult of the Paraclete*에서 볼 수 있다. Fichter는 베버의 카리스마 이론을 좀 더 사회학적으로 개념화하였으며 movement가 점차적으로 제도화되어가며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이

24) Joseph H. Fichter. *Social Relations in the Urban Parish*,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63, p. 22. 여기에서 'dormant'를 한국가톨릭에서는 오랜 동안 '냉담자'라고 불러왔으나 최근 몇 해 전부터 '쉬고 있는 신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일상화(routinization)되어가는 것을 추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통(orthodox)과 비 정통(heterodox), 보수주의와 진보(자유)주의를 대비하여 구성원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Mills는 이 책의 연구가 현재 종교적 운동이라는 과목에 보충자료가 될 수 있고 카리스마의 부흥에 관심이 있는 가톨릭이나 다른 이들 사이에 연구용 책으로 유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²⁵⁾ 하지만 Mills는 이 책이 지니는 표본조사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heterodox에 대한 분석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였다는 문제점과, 더 심각한 것은 orthodox 대(對) heterodox에 대한 정의의 문제라고 Mills는 지적한다.

뒤따르는 몇몇 학자들에게 약간의 비판의 여지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의 이론은 특히 1950년대 미국가톨릭사회학회(American Catholic Sociological Societies)에 연합한 이들과 많은 학생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Davidson은 평가하였다.²⁶⁾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조직적인 위기나 구조적 긴장(예를 들면 교회의 조직이 지니는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특히 가톨릭 안에서 하위성직자가 지니는 주교의 권위에 대한 반발 등)은 Fichter가 제공해주는 이론과 같이 좀 더 사회학적 전망으로 전환함으로써 극복 가능할 수 있겠다. 어쩌면 가톨릭교회가 지니는 지속적인 생명력과 구조를 지탱하기 위해서도 사회학적 발전과 논리적 진보가 필요할지 모르겠다. 이상과 같은 논점에서 보면 Fichter의 이론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회학의 이론적 개념적 진보에 공헌하였고, 특별하게 말하면 종교의 과학적 탐구에 공헌했다”²⁷⁾고 말할 수 있다.

25) Edgar W. Mills, “Review Symposium: Knowledge for Chang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Vol. 14, No. 2, 1975. pp. 187-188을 요약, 정리하였다. 여기에서 베버의 카리스마이론과 피히터의 이론의 차별성은 본 논제와 무관하므로 논하지 않았다.

26) James Davidson, *op. cit.*, p. 177.

27) *Ibid.*, p. 179.

3. 평가

Everett C. Hughes는 *Religion as an Occupation*을 서평하면서 Fichter가 다양한 전문가와 직업에 관한, 그리고 사회조직, 관료주의와 경영에 관한 사료들과 유대교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개신교에 관한 연구들을 읽어왔고 또 그것을 이용한다고 진술하였다.²⁸⁾ 물론 그러한 선지식이 그의 연구에 녹아들어간 것이겠지만 그의 연구 대상은 가톨릭교회 안에서 한정되어있다. 따라서 그의 연구나 이론을 일반화해서 개신교, 유대교와 같은 타 종교나 다른 교파나 교단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에 그의 이론이 종교사회학적으로 보편적이라서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다면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가장 큰 비판은 피해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이론이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가톨릭에 너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다만 측정 방법론과 유형론에 대한 시각을 열어주는 학문적 이론만 제공한 셈이 되고 말았다.

그의 대표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유형론에서 명목척도와 서열척도의 구분은 탁월한 업적이었다. 그러나 위에서 간략히 언급한 것 같이 Fichter는 ‘종교적이다(being religious)’라고 할 수 있는 것의 다차원적 성격을 단일화시켰다는 문제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종교적 요소가 독립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원적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의적인 지식이 풍부한 것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의 종교적 실천은 종교성을 측정하는데 각각 독립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요소가 서로 상관관계 없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각각의 독립변수를 하나로 수렴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종교적 헌신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교회 밖에서 자신이 신앙하는 종교적 신념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종

28) Everett C. Hughes, "Book Reviews; Religion as an Occupation: A Study in the Sociology of Profession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Vol. 3, No. 2, April 1964, p. 278.

교성의 측정을 어떠한 기준에서 볼 것인가?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Fichter는 여러 차원의 종교적 성격을 단순하게 하나로 수렴시켰다는 오류를 범했다는 비판을 모면할 수 없게 되었다.

예수회 사제인 Fichter의 주된 관심은 아무래도 가톨릭교회와 그 미래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가톨릭교회에 사회학적 이론을 적용시키려는 Fichter의 노력은 그의 작품 어디서나 볼 수 있지만 특히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와 같은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관심은 특별해 보인다. 이렇게 볼 때 1950년대 후반서부터 Fichter의 연구관심사가 성직자의 중추적 역할에 집중되는 듯하다.²⁹⁾ 성직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특히 *America's Forgotten Priest*에서 집중되는데 Laurence L. Falk는 이 책의 서평에서 Fichter가 성직자의 역할을 정의하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하였다.³⁰⁾ 그러나 Falk는 Fichter가 성직자의 위상을 계급구조(hierarchy)에서 보았다는 점에서 그의 이론을 용납하였다. Falk의 서평은 1969년에 쓰였다. 그런데 바티칸 2차 공의회가 1962년에 소집되어 1965년에 폐회된 것을 고려한다면, 바티칸 공의회가 정신이 반영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른 듯하다. 최근에 와서 가톨릭 안에서 일반화 된 공의회 정신의 이해는 특수성소인 사제중심의 교회를 지양하고,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누구나 사제직에 부르심(vocation)을 받은 것이라는 보편사제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문제는 Falk가 비판했던 성직자의 계급구조(hierarchy)의 문제가 아니라 Fichter의 교회관이 아직도 성직중심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해야 했다. 그렇다면 이제 Fichter는 공의회문헌에서 교회론에 관한 신학적 문제들을 꺼내어 신학의 범주에서 다뤄야 할 문제를 종교사회학의 영역에서 다뤘다는 비난도 면할 수가 없게 된다.

성소(vocation)에 관한 문제만 해도 Fichter의 개념상의 문제를 명확

29) James Davidson, *op. cit.*, p. 175.

30) Laurence L. Falk, "Book Reviews: America's Forgotten Priests: What they are saying,"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Vol. 8, No. 1, Spring 1969, p. 185. "some delineation of common responsibilities and activities of priests in their respective offices would serve to orient the reader in his understanding of hierarchial associations."

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성소에 관한 문제를 주로 다룬 *Religion as an Occupation*은 바티칸 공의회 이전인 1961년에 출판되었다. 오늘날 공의회 이후 성소에 대한 이해는 광의에 의해 해석되지만 그 이전에는 협의로 해석되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Fichter의 이론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는 성소를 하나의 직무(occupation)로 사회학적 이론 안에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는 Fichter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론적으로 일련의 비판의 소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교사회학에 있어서 “개척적인 연구가이면서 개혁주도자(protagonist-reformer)이기도 했다”³¹⁾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만하다.

IV. Gerhard Lenski

1. Lenski의 이론적 배경

Lenski는 Fichter에 비하여 많은 책을 쓰지 않았지만 몇 권의 책들도 대부분 사회학에 관련된 것이다. 정치 및 경제적인 힘의 근원과 결과 뿐 아니라 인간의 불평등의 인과관계를 비교사회분석으로 다룬 *Power and Privilege*,³²⁾ 사회변화의 역동성을 강조하며 역사, 문화, 비교의 사회학을 소개하면서 환경-진화론적 전망(ecological-evolutionary perspective)을 제공하는 *Human societies*³³⁾, 최근에 발간되었다고는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저서인 *Ecological-Evolutionary Theory; Principles and Applications*가 있다. 이상의 저서들은 주로 뒤르켐과 베버의 연장선상에서 발전시킨 사회학적 이론들을 포함한다. 위에 소개한 Lenski의 저서들에서는 종교사회학적 이론의 간접적 근거만 찾을 수 있을 뿐이

31) James Davidson, *op. cit.*, p. 176.

32) Gerhard E. Lenski, *Power and Privilege: A Theory of Social Stratification*, New York: McGraw-Hill, 1966.

33) Gerhard E. Lenski, *Human Societies: An Introduction to Macrosociology*. New York: McGraw-Hill, 1978.

므로 그의 저서에서 나타나는 사회학적 이론을 여기에서 모두 언급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논의로 하겠다. 하지만 그의 사회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종교와 정치, 종교와 경제, 종교와 가정생활의 연관성과, 종교와 과학과 교육 등등을 폭넓게 다룬 *The Religious Factor*에서는 Lenski의 본격적인 종교사회학적 이론을 파악하는데 많은 결정적인 근거들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The religious factor*에 나타나는 종교사회학적 이론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Fichter의 이론에서 드러난 한계를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논자가 전장(前章)의 후반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Fichter는 많은 종교사회학적 공헌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여지를 남기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적어도 2가지 요소는 Gerhard Lenski의 *The religious factor*에 근거하여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Lenski가 연구대상의 다양한 표본조사를 통하여 자신의 이론을 가톨릭 외의 종교에 보편적인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Fichter의 유형론이 지니는 한계를 다원성의 관점에서 극복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이론적 보완에 초점을 맞추려한다.

2. Fichter에 대한 Lenski의 이론적 보완

우선 Fichter는 연구대상을 가톨릭에 제한하였지만 Lenski는 개신교, 가톨릭, 유대인을 대상으로 그 연구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시간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쳤던 Lenski는 1958년부터 디트로이트 지역의 사람들에서 표본조사(sample survey)를 실시하면서 개개인은 각자의 행동양식, 믿음, 가치, 태도들에 관하여 질문을 하게 된다.³⁴⁾ 이러한 조사방법이 특정종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34) Gerhard E. Lenski. *The Religious Factor*, op. cit., p. 12. 이 표본조사는 3가지 요소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소개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interviews, 2. with a representative cross-section of population being studied, 3. utilizing a standardized schedule of questions.” 참고로 디트로이트시의 종교분포는 백인개신교 41%, 백인가톨릭 35%, 흑인개신교 15%, 유대인 4%, 그리고 나머지 5%

때문에 개신교, 가톨릭, 유대인이라는 다양한 표본조사를 통하여 찾아낸 원리들을 종교 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예를 들면 Fichter가 성직자(Clergy)라고 했을 때 그 연구 대상은 가톨릭 사제들에 한정되었지만 Lenski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성직자를 모두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러한 조사를 토대로 성직자의 사회적 기원과 사회적 가치들의 보편성을 밝히려하였다.³⁵⁾ 물론 Fichter에 있어서 성소(vocation), 혹은 부르심(calling)은 가톨릭 신학의 범주에서 이해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성직자라는 보편적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예를 들면 성직자의 정체성들 각 종교는 어떻게 인식하는지,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종교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Lenski에 와서는 성직자의 정체성을 평신도들과 사회-종교적 집단의 연관성 속에서 사회학적으로 일반화시켰다.³⁶⁾ 따라서 가톨릭 안에서 이해된 성직자에 대한 Fichter의 제한적 의미를 더욱 넓혀주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신학자들이, 특히 가톨릭신학자들이 가톨릭 사제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에 모두 동의하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Fichter를 예로 든 것은 그의 연구의 성과가 Lenski의 연구에 비하여 보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Lenski의 연구는 특정한 한 종교에 제한되지 않으므로 해서 종교사회학을 일반화 할 수 있도록 외연의 폭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Fichter를 보완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Lenski는 종교성 안에는 여러 차원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먼저 여러 차원의 종교성에 대한 Lenski의 이론을 단순화 해보면, 종교 집단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연합적 관여(associational involvement) 공동체적 관여(communal involvement)로 구분하였다고 볼 수 있다.³⁷⁾ 전자는 주일예배의 참석 빈도나 교회단체에 참여하는 정도와 같은 기준에 따른 구분이고, 후자는 개인이 친구나 친척들과 맺

는 소수의 불교, 무슬림, 동방정교회, 혹은 가톨릭이 포함된다.

35) *Ibid.*, chapter 7, 특히 p. 287.

36) *Ibid.*, pp. 285-286.

37) *Ibid.*, pp. 22-23.

고 있는 일차적 관계의 정도에 따라 측정되는 기준에 따른 구분이다. 두 번째, 종교적 오리엔테이션에 따라서 교리적 정통성(doctrinal orthodoxy)과 헌신성(devotionalism)에 의한 구분이다³⁸⁾. 전자는 교회의 정통적 교리를 받아들이는 정도나 믿는 정도에 의한 구분이다. 후자는 얼마만큼 하느님(God)과 개인적으로 일치하는가 하는 것이 강조되는데, 개인적인 경건함(pietism)을 포함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얼마만큼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자주 기도하는가 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측정되는 구분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종교성의 차원을 구분하였지만 흥미 있는 것은 네 가지 종교성의 차원이 각각 독립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연합적 관여가 높으면 공동체적 관여가 높은 것으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며, 교리적 정통성에 밝으면 헌신성도 높게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를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네 가지의 종교성의 차원이 상호 상관관계가 낮아서 Lenski는 이를 각각 별개의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종교성의 유형은 다원성을 보여주지만 각각의 차원 사이에 연관성은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enski는 종교성의 척도를 다양하게 만들었다. 즉, Fichter의 유형론이 여러 차원에서 일차원으로 환원되었다면, Lenski는 다양한 차원의 유형으로 시각을 넓혔다는 점에서는 종교사회학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의 측정론은 아직 다종교에 적용하기에는 이른 것이었다. 그의 연구대상과 표준조사는 가톨릭에 한정된 Fichter보다는 넓은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Lenski 역시 그리스도교(christianity)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의 이론을 받아들인 Glock에 와서는 다종교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하지만 종교성의 다차원적인 유형이 독립변수를 가지며 타 종교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원리를 찾아낸 것은 분명하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자면 Lenski는 그리스도교 안에서 도출한 이 네 가지 종교성의 차원을 다시 하나의 척도로 상정해서 모든 종교에 무리하게 적용하려 했다는 점이다. 그는 *The Religious Factor*의 결론에서

38) *Ibid.*, pp. 24-25.

종교의 본질(The nature of religion)을 정의한다. Durkheim의 이론을 인용한 Lenski의 종교의 정의에 의하면서 세상에 종교가 아닌 것이 없어야 한다. 그의 정의에 의하면 신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theistic)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뿐 아니라 비신적인(non-theistic)인 신앙을 지니고 있는 소승불교, 공산주의, 심지어는 현대의 인본주의를 신봉하는 모든 것도 종교에 포함된다.³⁹⁾ 그러면 네 가지 종교성의 지표가 모든 이에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Lenski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론들을 만들어내려다가 종교성을 지나치게 일반화시켰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성을 단일한 차원에서 측정하려 했으며, 가톨릭교회 안에서만 연구를 해왔던 Fichter의 2가지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하고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V. 결론

가톨릭교회의 지상목표는 이 세상 끝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이러한 선교 소명이 가톨릭교회의 존재이유이다.⁴⁰⁾ 이에 근거하여 천주교서울대교구교구장은 교구장으로 취임 한 이후에 줄곧 ‘복음화 2020’을 사목 목표를 강조하였다. 다시 말하면 2020년에 가서는 가톨릭 신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게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구의 20%는 선교의 비율과 동일시되고 있으며, 교구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가톨릭 신자들은 이러한 수준에서 선교목표를 달성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 인구의 20%가 과연 대한민국의 선교의 정도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이 바로 Fichter의 이론이다.

39) *Ibid.*, p. 332.

40)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모두 복음 선포의 함의로 끝난다. 그리스도교회가 얼마만큼 그 소명에 충실했는가 하는 점에 상관없이 선교는 그리스도교의 지상목표이며 한국가톨릭도 이 소명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인구주택 총 조사에서 천주교 신자 비율이 10.9%로 조사되었다고 해도 이것이 곧 선교의 정도와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가톨릭 성직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듯하다. 그렇다면 선교의 비율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선교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하지만 선교라는 문제를 종교성이라는 문제로 대치한다면 우리는 Fichter에게 그 답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는 본당신자들을 4가지로 유형화하였는데, 그 유형화에 따르면 단지 세례를 받고서 쉬고 있는 신자까지 모두 선교비율 인구에 포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가톨릭교회에서는 오랜 기간 냉담해 온 신자(Fichter에 따르면 *dormant*라 하였다)들은 ‘쉬고 있는 신자’자라고 하여 일정기간 지나면 행불자 처리한다. 하지만 행불처리 된 신자들도 인구조사에서는 자신의 종교를 가톨릭으로 표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단지 가톨릭인구비율이 선교의 정도가 될 수 없음을 Fichter의 연구는 명백히 보여준다.

물론 Fichter가 밝힌 유형론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예를 들어 다만 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톨릭 정신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Lenski는 Fichter보다 좀 더 세련되었으며, 일반화 할 수 있는 지표들을 만들었다. 비록 Lenski 조차도 각 지표들의 연관성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하였지만 측정론이 종교사회학 연구 방법론의 한 범주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이미 입증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론을 대할 때 “통계학적인 전문성이 없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⁴¹⁾은 난해할 수 있는 학문을 대중화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작업을 토대로 하여 더 많은 표준 지표들을 만들어서 그것의 연관성을 세밀히 검토할 수 있다면 선교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준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톨릭 서울대교구 선교의 목표인 ‘2020’은 단지 수에 불과한 것이 될 수 있으며 그 수치를 넘어서 실제적인 선교의 정

41) James Davidson, *op. cit.*, p. 174.

도를 새로운 기준에서 설정할 수도 있다. 교회의 소명을 실현하는데 목표를 세우는 것은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그 목표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기 위해서 Fichter와 Lenski가 이미 제시했던 사회학적 도구들을 사용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즉 사회학적 도구인 비판적 측정론을 통해 ‘어디까지를 가톨릭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며, 어디까지를 선교비율로 볼 것인가?’하는 한국 가톨릭의 실질성장에 대한 진지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다.

논자는 종교성의 측정을 표준화하는 데에는 아직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종교성의 다원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상호 연관성을 논해야하고, 단일성을 말하면 다양한 지표들을 어떻게 통합하여 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Fichter와 Lenski의 측정론이 지니는 문제의 한계는 주관적 종교의 체험을 어떻게 객관화하여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종교의 탐구에 있어서 사회학적 접근이 종교 자신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 천주교회의 지상목표인 선교의 실현을 위해서도 종교사회학적 탐구는 신학적 탐구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겠다.

Bibliography

1. Books

- Fichter, Joseph H. *America's Forgotten Priests: what they are saying*.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68.
- _____. *One-Man Research: Reminiscences of a Catholic Socialist*. New York: Wiley Interscience, 1973.
- _____. *Priest and People*. New York: Sheed and Ward, 1965.
- _____. *Religion as an Occupation: A Study in the Sociology of Profession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61.
- _____. *Social Relations in the Urban Parish*.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63.

- _____. *Sociolog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 Lenski, Gerhard. *The Religious Factor: A Sociological Study of Religion's Impact on Politics, Economics, and Family Life*. New York: Doubleday, 1963.
- _____. *Human Societies: An Introduction to Macrosociology*. New York: McGraw-Hill, 1978.
- _____. *Power and Privilege: A Theory of Social Stratification*. New York: McGraw-Hill, 1966.

2. Journals

- Davidson, James, "Review Symposium: The Sociology of Religion of J. H. Fichter,"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Vol 14, No 2, 1975.
- Falk, Laurence L. "Book Reviews: America's Forgotten Priests: what they are saying,"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Vol. 8, No. 1, Spring 1969.
- Hughes, Everett C. "Book Reviews; Religion as an occupation: a study in the sociology of profession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Vol. 3, No. 2, April 1964.
- Mills, Edgar W. "Review Symposium: Knowledge for Chang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Vol. 14, No. 2, 1975.

Abstract

A Critical Observation to the Korean Catholic Evangelization Comparing between Joseph H. Fichter's and Gerhard Lenski's Theories

Song, Cha-sun

The Korean Catholic church has achieved considerable growth in its population. For instance, Catholics represented 10.9% of Koreans in 2006 according to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representing a 74.4% increase in comparison with 10 years. The Protestant and Buddhist population equally decreased during this same period. Furthermore, the Vatican appointment of a new cardinal in early 2006 may help explain the remarkable growth of the Korean Catholic. The new Cardinal, who occupies the Seoul archdiocese, has proclaimed the '2020' movement striving to increase the Korean Catholics population to 20% by 2020, as a policy of Korean evangelization. In spite of the numerical growth, however, inner and outer growth should be differentiated using the theories of both sociologists Joseph H. Fichter and Gerhard Lenski.

First, Fichter's typology theory, a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contributions to the sociological study of religion, legitimates that the simple number of a religious population does not accurately represent the evangelization which Korean Catholics pursue. Fichter proved that there are many different religious dimensions within a religion, categorizing ordinal and nominal measurements. According to the ordinal measurement, one religion, strictly speaking American white catholic in his survey, could be divided into four groups: nuclear, modal, marginal,

and dormant believers of Catholicism. Although his clarification of diverse religious dimensions proven by psychosocial analysis successfully explains religious life, the ordinal measurement reveals its limitation to just Catholicism. Lenski's theory goes beyond just Catholicism extending four religious dimensional categorizations including associational involvement, communal involvement, doctrinal orthodoxy, and devotionism to all religions. He also addresses involving oneself in religious life and how to be oriented. This theory compensates for the limitation in Fichter's theory, applying to all religions such as Protestantism, Buddhism, etc.

When considering Lenski's and Fichter's theories and applying them to the Korean Catholic Church, we are able to recognize that the mere number of a religious population does not accurately represent evangelization. If it does, we should reexamine the meaning of evangelization and critical measurements reflecting religious life. For this reason, the sociological approaches suggested by Fichter and Lenski to the study of religion may be complimentary rather mutually exclusive in helping to explain the rapid growth in the Korean Catholic Church.

Key word: Korean Catholic Evangelization, Joseph H. Fichter, Gerhard Lenski, typology